

탱화속의 불보살 한자리에

본사단위 도록 총 60권 발간

석정·범하스님 1600년만의 첫 원력 불사

전국 사찰에 산재된 불화(佛畵)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불모(佛母) 석정스님과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스님이 지난 90년부터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해 온 불화들이 「한국의 불화」로 편찬된다.

5년간의 답사에 올해 선보인 불화집 「한국의 불화」는 우선 적지사 본말사편과 통도사 본말사편이 일차적으로 묶여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정, 범하스님은 이미 적지사 본말사편의 해당 자료들을 불지사(대표·김형균)로 넘겨주며 현재 제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사 본말사편에 이어 바로 통도사 본말사의 불화들도 도록으로 출간되는 데 87년에 간행된 불화집을 보완해 나오게 된다. 또 해인사, 송광사 본말사에 대한 자료조사도 금년내로 마감해 바로 간행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불화집은 25개 본사와 말사들에 흩어져 있는 불화들을 모두 실고 중요한 불화는 부분 도록 상세히 담게 된다. 따라서 1개 본말사당 타블로이드판형 3책페이지 분량 2~3권의 불화집이 나오게 되며 25개 본말사에 대한 전질이 완간될 경우 50~60권 분량의 대형 불화집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불화」는 칼라화보로

불화들을 담고 화기(畵記)를 해설한 자세한 해설이 첨가되며 각권의 말미에는 관련 논문도 수록된다. 논문은 동국대 장충식교수 등이 준비하고 있다.

“우선 삼보사찰과 이미 준비 작업이 끝난 적지사편을 금년 내로 출간하게 됩니다. 워낙 많은 인력과 시간 재정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석정스님과 범하스님의 원력으로 10년 이상을 계획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판을 맡은 김형균씨는 금년에 2~3개 본말사의 불화집 1차적으로 펴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불화」는 불화를 후불탱, 패불, 각불탱, 천불탱 등 종류별로 나누고 문화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입장에서 제작연대나 조성자 등에 대한 재확인 작업도 거쳐 편찬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불화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 나온 단편적인 불화집에 비해 「한국의 불화」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총괄의 의미가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외의 중요한 성보 발굴, 미술사적 가치 재검정, 관련 학자, 금어(金魚 : 불화를 그리는 사람)를 작업의 모본, 보존에 대

한 경각심 등의 특징과 효과를 갖게 된다. 또 이 작업이 끝나면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한국불화의 화기집(畵記集)도 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 다니며 불화를 관측하고 정리한 석정스님은 “귀중한 성보인 불화의 훼손이 날로 심해지고 도난의 우려마저 높아 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범하스님은 “석정 스님의 높은 뜻을 따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내야 할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자들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로탱의 세계」 출간 도서출판 예경 4월에

한편 전국의 감로탱화를 집적한 「감로탱의 세계」도 올 4월경에 나온다.

도서출판 예경이 펴낼 이 책은 조선시대 감로탱의 전체도와 부분도 화기는 물론 「감로탱의 도상과 신앙의례」, 「감로탱의 양식변천과 도상해석」 등 논문도 함께 실린다. 분량은 3백~3백50 페이지 가량이며 수록되는 감로탱은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를 시대별로 구분해 도판 해설과 함께 실는다. 또 도상분석과 종합적 성격도 일목요연하게 조망해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전국사찰의 불화를 한 자리에 모은 「한국의 불화」가 금년부터 출간된다. 불화의 보존은 물론 역사적 의의까지 상세히 담을 이 작업은 총 60권 분량의 화집을 묶는 대작불사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적지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

조계종 교육·포교원 개원

불교의 사회적 역할·신행혁신 다짐

조계종 불원으로 신실·격상된 교육원(원장 원산스님)과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의 개원식 및 헌관식이 각각 지난 13일과 20일에 성료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총회회장 삼정스님,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 해인사 주지 지관스님 등 종단과 교육관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교육원 개원식은 경과보고 개원인사 법어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인사에서 교육원장 원산스님은 “불교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처로 사회의 향도자 역할을 다 하는데 교육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역시 총무원청사 1층에서 포교원장 취임법회 및 개원식이 봉행됐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포교원장 정락스님은 취임사에서 “포교원이 불원사대를 기점으로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획기적인 포교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연인터뷰 7면)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총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선출했다.

교재편찬위원회는 오는 3월 실시된 행자교육의 교재 「초발심 자경문」중 자경문 부분을 빼고 대신 보현행원종을 새로 교재로 추가하기로 했다.

제1차 포교 토론회 열어

연구·활동사례 발표

포교원이 불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다양한 포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종단 내의 포교 활동가들의 이론 연구와 포교 역량의 확대 심화를 위해 스님, 포교사, 신행단체 실무자, 연구자, 신도들이 포교와 관련한 제반과제를 활동사례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제1차 포교토론회」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오후3시 본사 다원 녹수청사에서 열린 첫 토론회서 박경중교수(동대 불교대)와 신회관 사무국장(자비의 전화)이 「불교의 경제관에 대하여」 「불교 시민운동단체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를 각각 발표했다.

위원장 총범스님 선출

교재편찬위원회

조계종 교육원 산하 교재편찬위원회는 지난 12일 교육원

송석구·조희영 교수 동국대 총장후보로 추천

동국대 제13대 총장후보로 송석구, 조희영교수가 선출됐다.

동국대 교수회와 직원비상대책위는 지난 15일 각각 총장후보 추천선거를 실시, 철학과 송석구교수(교수회 2백35표, 직원회 1백17표)와 경영학과 조희영교수(교수회 1백93표, 직원회 1백30표)를 이사회에 총장후보로 추천했다.

재단법인 동국대이사회는 이달 말 이사회를 개최 제13대 총장을 확정 발표한다.

만암스님 38주기 법회

전남 백양사(주지 지선)는 지난 15일 만암스님 열반 38주년을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서용스님(백양사 조실)을 비롯 문중스님과 재가신도등 2백여명이 동참, 만암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6월까지 무료검진 동국대 인천한방병원

동국대학교 인천 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부터 5시까지 인천 남구 연수 2동 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동국대 인천 한방병원은 종합병원수준에서는 최초로 동인천 일방문과 양 한방 협진체제를 구축, 인천지역의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인천한방병원의 김영인 과장은 “오는 6월까지 인천시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 한달에 2번 무료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8월이후에는 노인성, 복지관등의 특정지역을 인천시로 부터 배정받아 정기검진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동국대 인천한방병원은 스님에게는 30% 불자에게는 20%의 진료비 할인혜택으로 많은 불자들의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자비의 전화 정기총회 새해 예산 사업심의

24시간 전문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자비의 전화 강아실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총회에는 자비의 전화 상담원 전원이 참석해 94년도 업무 및 결산보고, 9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심의 위원진 선정등의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대불련 총동문회 전국 대표자 법회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명호근)는 2월11일 오후 6시 대전 자광사에서 각 지역 동문 상견례를 결한 전국대표자 법회를 개최한다. 총동문회는 이날 법회에서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11일 동문회 산하에 설치한 학술원의 발표회와 총동문회를 법인으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회의도 갖는다.

남북해외불교지도자 합동 법회

3월 L·A서... 평불협 미주본부 주최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회의(회장 월주) 미주본부는 오는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2회 남북 해외불교지도자 합동 기원법회와 함께 「평일과 불교」 주제로 기념강연을 갖는다.

평불협은 또한 오는 4월 「북한불교연구소」 창립에 맞춰 「남북한 불교발전을 위한 창립 기념 세미나」도 가질 예정이다.

지난 91년 10월 북한의 조선 불교도연맹 박태호선사와 한국측 불교지도자가 최초로 만난 경험을 되살려 불교계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각종단 청년회장 이취임식

대불청·천태종·진각종등 새해들어 대불청을 비롯한

리법에 따라 새 집행부를 구성, 청년회 활동 강화를 내렸다.

천태종 중앙청년회는 2월5일 구인사에서 신임 이문수 중앙 회장 취임법회를 갖고 「효」를 중심으로한 포교사업과 지역청년회 활성화를 목표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진각종도 구만 17일 제19대 본부회장에 선출된 박희태회장의 취임법회를 2월 5일 대전에서 갖는다.

대불청 서울지구 대의원총회

대불청 서울지구(회장 김규범)는 오는 27일 오후 7시반 민회관에서 제1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명직임원인준, 9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올해 서울지구의 전반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13일 거행된 조계종 교육원 헌관식.

‘생명운동’ 단체 통합추진

생명공양실천본부등 4개단체, 효율적 운영위해

생명공양실천본부, 간병인협회등 생명운동을 벌이는 교계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명운동을 벌일 전망이다.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은)는 지난 16일 개최된 이사와 상임운영위원 확대회의에서 교계 생명운동단체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할 것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 갔다.

법인 통합을 전제하게 될 생명운동단체들은 생명공양실천본부를 비롯 간병인협회(회장 정진) 김로심장회(회장 정일) 각막 및 장기기증본부(이사장 박

운흔)등 4개 단체이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통합에는 어려운 난관이 없지 않지만 이 난관들을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 생명운동 단체들의 통합은 전불자들의 비탈이 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제 단체들의 역할을 하나로 모아 함께 생명운동을 이끌어 가야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생명공양실천본부는 생명운동 단체 통합추진을 비롯 △신행단체 및 군법사등 2회 교육 총보 △각 청년회 거사회를 중심으로 현행운동 전개 △생명공양

가족 수련회 개최 (연 2회) 등 95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비전향 장기수 고향방문” 인권위 서명운동 전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지난 17일 대각사 대웅전에서 비전향 장기수 고향방문을 위한 불교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경스님(보광사주지) 권오현(민가협 공동의장) 윤희보씨(89년 출소)등 인권관계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서명발대식

에서 진관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비전향 장기수들이 감옥서 한세한 김영태씨의 고향방문은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의 물결을 바로잡는 길”이라며 “2천만 불교인들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고향방문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인권위는 기자회견 후 통일원과 적십자사를 방문 인도의우의 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권위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해문)는 지난 13일 내할 여성노동자 성폭행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법 제정 △성폭행 사건 당사자 엄중처벌 △피해노동자에게 물질적 정신적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아직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을 작품가치로만 보고 계십니까?

금강경(후면) 10폭 병풍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전면 (1770년)에 수록

특징

- 원력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수록로 조성 하였습니다.
-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규격

- 높이 : 5자 8치 (175.8cm)
- 폭 : 14자 5치 (439.5cm)
- 재질 : 스키목, 양면비단, 스모새 특후지

순금(24K) 양표면처리

·경판규격 : 505×255×8 (mm) ·재질 : 우석(99.9%)

·특별가격 ₩ 480,000

경관테리에 단을 쌓아 전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력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닦게 하였습니다.

(콜로서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콜로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문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금강석같은 금강경 병풍을 설명절 특별가격으로 한정수량을 보급합니다.